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2장 작은 믿음

『산상설교』 하권 제42장, 인쇄 156~169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30

> ❓ 예수님을 믿는데도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자꾸 불안해지는 건 왜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를 염려 문제에 대한 주님의 최종 진단으로 읽는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신다. 이 말씀은 팔복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작은 믿음이란 구원 문제에만 갇혀 삶 전체로 번지지 않는 믿음이다. 그는 작은 믿음을 다섯 가지로 분석한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믿음, 생각하지 않는 믿음,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아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권리가 없고, 진리를 깨달아 일상의 모든 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 절별 정리

📜 1.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6:30을 새와 들풀을 예로 든 긴 논증의 결론으로 본다. 문제의 겉원인은 새와 꽃에서 마땅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고, 궁극적 원인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는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작다'고 하신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창조주이지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뿐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과 인간의 보편적 형제성'이라는 막연한 가르침을 거부한다.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이방인, 두 부류로 나눈다. 주님이 염려하시는 대상은 구원의 믿음에서 멈춰 선 신자들이다. 그런 신자는 이생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염려에 쉽게 무너진다. 주님은 먼저 작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고(부정), 31절부터 믿음을 키우는 길을 가르치신다(긍정).

1. 문제는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족이다
2. 이 말씀은 팔복의 사람, 곧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3.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아버지시다
4. 복음은 사람을 안과 밖, 두 부류로 나눈다
5.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결국 작은 믿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6:30

염려의 궁극 원인을 '작은 믿음'으로 진단하는 본문

>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요한복음 1:12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있다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44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대조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31

작은 믿음을 진단한 뒤 이어지는 적극적 처방의 출발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2. 작은 믿음의 대략적 정의 — 구원에만 갇힌 믿음

로이드 존스는 먼저 작은 믿음을 크게 정의한다. 작은 믿음은 삶의 한 국면, 곧 영혼 구원에만 머물고 삶 전체로 번지지 않는 믿음이다. 신자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는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 버린다. 그 결과 일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근심하고 세상처럼 산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잡지 않는 믿음”이라고도 부른다.
성경의 약속은 놀랍도록 많아서 삶의 어느 영역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만 골라 붙잡고 나머지는 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어떤 사람의 말을 소개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그분을 믿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돌보신다는 말씀에는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1. 작은 믿음은 구원 문제에만 머무는 믿음이다
2. 일상에서 불신자와 차이가 없어진다
3. 약속의 일부만 골라 붙잡는 믿음이다
4. 참 믿음은 삶 전체로 확대된다(히브리서 11장)
5.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의 말씀은 믿지 않는 모순

베드로후서 1:4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 약속이 삶 전체를 덮는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은 삶 전체에 미쳤다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마태복음 11:28

짐을 맡기라는 초대를 받고도 짐을 스스로 지는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4:14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의 약속을 믿지 않는 모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35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주리지 않는다는 보장

>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해도 사실은 그를 믿지 않는 것이다.”

📜 3. 환경에 지배당하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

이제 그는 작은 믿음을 하나씩 분석한다. 그는 복음을 교회에 있을 때나 묵상할 때만 떠올리는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 큰 오류는 없다고 말한다. 첫째, 작은 믿음은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에 지배당한다. 염려의 구름 아래 무력하게 앉아 일이 터질 때마다 '녹아웃'된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넘어서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것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금욕적 인내도, 억지웃음으로 참는 것도 아니다. 둘째, 주님의 가르침에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각'이다. 작은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삶이 몽둥이로 머리를 치면 정신이 아찔해져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며 주저앉는다. 그는 이것을 항복이자 패배라고 부른다. 성경은 논리로 가득하다. 그러니 믿음을 신비한 것으로 여기며 안락의자에 앉아 기적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새와 들풀을 보고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그는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같은 걱정을 되풀이하는 상태를 예로 든다. 그것은 내가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무엇이 내 생각을 다스리는 상태이며, 그것이 염려의 본질이다.

1. 작은 믿음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믿음이다
2. 신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3. 억지로 참는 금욕적 인내와는 다르다
4.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다
5. 염려는 생각을 빼앗긴 상태다

> **로마서 5:3**
>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성경이 그리는 신자의 모습이다
>
>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새를 보고 추론하라 — 믿음은 생각하는 것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28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 관찰과 추론의 명령

>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기독교인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 4.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는 믿음

셋째, 작은 믿음은 성경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철저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다. 시련이 닥치면 성경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안의 모든 것과 우리 밖의 마귀가 이것을 막으려 한다. 막는 방식은 해석의 형태로도 온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산상설교를 미래 왕국에서 살 사람들의 것으로 격하한다. 로이드 존스가 앞선 장들에서 다룬 해석으로, 세대주의 쪽에서 나온다. 또 어떤 이들은 오순절을 겪은 초대 신자에게는 맞지만 오늘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 모두를 거부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바리새인에게 하신 책망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약속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이천 년 전과 똑같으시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문맥을 따라 있는 그대로 받으라고 덧붙인다.

1. 작은 믿음은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는다
2. '제자들만의 말씀'이라는 해석을 거부한다
3. '미래 왕국용' '초대교회용' 해석도 거부한다

5.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말씀도 유효하다

마태복음 6:30

이 약속과 책망을 지금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후서 1:4

약속은 특정 시대가 아니라 신자 모두의 몫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 5. 자녀 됨을 모르는 믿음 — 하늘 아버지를 알라

넷째, 우리 문제의 절반은 우리가 믿는 구원 교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신약 서신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리로 밝히고, 뒷부분에서 '그러므로'로 실천을 끌어낸다. 주님의 논증도 같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제대로 깨달으면 염려는 불가능해진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과 능력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로마서의 “하물며” 논리도 같은 방향이다. 원수였을 때 아들을 내주셨다면 자녀가 된 지금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자녀 됨을 깨닫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다. 그는 세 가지를 묵상하라고 한다.

첫째는 **불변의 목적**이다.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고 우연은 없다.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에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지으며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하니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순종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분이 작은 일을 안 하시겠는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을 알면 염려하지 않는다.

셋째는 **세력과 능력**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시편 46편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을 노래한다. “가만히 있어”는 감상적으로 '조용히 쉬라'는 뜻이 아니다. 대적에게 “포기하고 굴복하여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선언이다.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일한다. 그러니 염려는 어리석다.

1. 교리(신분)를 알아야 '그러므로'의 삶이 나온다
2. 자녀 됨을 깨달으면 염려는 불가능하다
3. 아버지의 불변하는 목적을 묵상하라
4. 아버지의 사랑과 세밀한 관심을 묵상하라
5.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위해 일한다

> **에베소서 1:18~19**
> 신자가 자기 소망과 받은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기도
>
>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로마서 5:10**
> 원수였을 때 화목하게 하셨다면 지금은 더욱 구원하신다
>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 **로마서 8:32~33**
>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논증
>
>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베드로전서 1:2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불변의 목적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히브리서 11:19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0:30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시편 46:10

“가만히 있어”는 대적에게 굴복하라는 선언이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에베소서 3:20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 6. 아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믿음 —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

고물에서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외쳤다.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답하셨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을 “왜 너희 믿음을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읽고, 이 한마디가 설교 전체를 요약한다고 말한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에 관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도 일상의 시련 앞에서 울부짖는 것은 빈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권리가 없다. 염려는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께 불충성하는 일이다.

1. 궁극 원인은 아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2. 풍랑 속 제자들: 믿음이 있었으나 쓰지 않았다
3.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적용으로 드러난다
4.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권리가 없다
5. 염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 **마가복음 4:38**
> 풍랑 속에서 염려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외침
>
>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 **누가복음 8:25**
>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 믿음을 적용하라는 책망
>
>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 **마태복음 6:31**
>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결론을 맺는다
>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기독교인은 염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작은 믿음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만 머물러 삶 전체로 번지지 않는 부족한 믿음이다.

구원의 믿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믿음이다.

팔복
마태복음 5:3~12에 나오는 여덟 가지 복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린다.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로이드 존스는 이를 거부한다.

이방인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 곧 그리스도 밖의 사람을 가리킨다.

불변의 목적
창세 전에 자녀를 택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금욕적 인내
감정을 누르고 이를 악물어 고난을 버티는 태도로, 환난 중의 기쁨과 다르다.

염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염려의 궁극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작은 믿음, 곧 구원에만 갇힌 믿음이다.
- 작은 믿음은 환경에 지배당하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녀 됨을 모르고, 아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해법은 하늘 아버지의 불변의 목적, 사랑, 능력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데 있다.
-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적용이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 앞에서 진리를 일상의 모든 일에 적용해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